

이주여성 출신지역 생활연구

- 동북삼성 조선족자치지구 집안시를 중심으로 -

송 순(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생활자원개발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여성 출신지역에 대한 생활연구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함이다. 자료수집은 2008년 6월27일~7월7일까지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위치하는 조선족 학교에서 대학생들의 교육 봉사활동을 지도하면서 관찰된 내용을 중심으로 얻어졌다. 집안시는 인구 23万명의 소도시이며 광개토태왕비와 능, 장수왕 능 등이 있는 고구려의 옛 수도 국내성이 있던 곳이다. 집안시 조선족 학교는 2004년 9월 집안시 조선족중학교의 토대 위에 집안시의 12개 중소학교를 합병하여 새로이 세운 직업고등학교(3개반), 중학교(6개반), 소학교(9개반), 유치원(4개반) 총22개반급이며 재교생이 580명 정도 되는 일체화된 기숙제학교이다. 봉사활동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아동들의 놀이와 생활을 관찰하였으며 교사와 교내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집안시 조선족들의 생활상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거생활과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거주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내 조선족의 형성: 일제이전(1910년 이전), 독립군, 1932~37년 만주전쟁동안 일본인에 의한 이주, 1940년 일본의 대륙침략 앞잡이 만주동척회사에 의한 전라, 경상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 등
2. 조선족의 한국사회 유입: 1990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효시
3. 조선족의 의식주생활: 의생활은 명절 등 예복은 민족 정서를 표현하는 한복 착용하고, 남자아동들이 착용하는 복식과 두건 등이 북방식이었다. 식생활은 조리되거나 완성된 식재료를 구입하여 가정에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식사하고 인스턴트식품은 혼하지 않았다. 주거 생활은 취사와 난방을 겸하는 온돌 방식의 부엌 아궁이를 사용하고 주거내 실외 공간에 닭장, 토끼장을 짓고 뒤뜰에 앵두, 살구, 뽕나무, 포도나무 등 유실수를 심고 채소밭 등을 가꿔 자급자족적 생활 터전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최근 공동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교사 등 안정적 직업을 가질수록 공동 주택을 선호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싼 편이었다.
4. 물가 및 경제생활: 공공요금에 저렴하고 경제생활은 농업위주에서 도시화와 산업 위주 생활양식으로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도시 진출을 희망하고 도시진출을 못한 농촌 총각들 중 장가못간 사람이 많다. 여성들은 결혼상대로 물론 도시총각을 선호하였다.
5. 생활문화: 명절(구정, 추석)에는 도회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귀향한다. 언어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조선어라 해도 의미가 달라진 언어가 많다. 청소년이 되는 특별한 의식(관례)은 없다. 혼례는 성혼선언과 양가 친지들을 모시고 피로연을 하며 심시일반 현금 부주를 하고 신혼여행은 가까운 호텔 등에서 1박 한다. 상례와 장례는 조선족은 화장 후 매장하고 제사는 잘 지내지 않는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가족이 함께 모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회갑식은 가족 친지 이웃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히 치러지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산 잉어 한 쌍을 선물로 올린다.
6. 교육: 자본주의 사고방식과 자녀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기대가 높았다. 조선족 언어와 중국어가 필수이며 영어, 러시아어 등 제2외국어 선택할 수 있으나 앞의 2개국어가 필수이어서 제2외국어를 할애되는 시간이 짧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조선족들은 중학교부터 한족 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부터는 필연적으로 한족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7. 놀이: 컴퓨터 게임 등 실내 놀이보다 비석차기(돌차기), 상지(장기의 일종), 고무줄놀이, 그대로 멈춰라, 찢꽂꽂, 축구 등 실외놀이를 즐기는 아동들이 많았고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아동들은 컴퓨터, 주산, 전자올겐, 태권도 등의 과외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